



06

해외교포가 ExitWise를 써야 하는 이유

물려받은 한국 부동산, 왜 언어부터 막힐까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상속·보유한 한국 부동산을 정리하려면, 시세도 서류도 절차도 전부 한국어와 현지 방문을 전제로 합니다. **현지에 머무는 사람에겐 ‘무엇을 가진지’조차 모국어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CT 01 현실 THE REALITY	ACT 02 위기 THE RISK	ACT 03 전환 THE SHIFT	ACT 04 결과 THE RESULT
상속받은 건물이 한국에 있어도, 시세와 등기 서류는 한국어로만 흘러갑니다. 매각을 알아 보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멀리 있는 지인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정보가 한쪽 언어로만 오가니 자산의 실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협상에서 늘 불리한 자리에 놓입니다.	ExitWise는 주소만으로 공공 데이터를 연동해 IM을 만들고, 이를 4개국어로 변환해 모국어로 자산을 이해하게 합니다. 시세·수익·세금까지 원격으로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한국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언어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비대면이라는 약점이 ‘어디서든 검토 가능한’ 강점으로 바뀝니다.

교포의 원격 매각을 돕는 4가지 CORE CAPABILITIES

 01 모국어로 보는 자산 한글 자료를 영어 등 4개국어로 변환해, 현지에서도 모국어로 자산을 이해하게 합니다.	 02 원격 IM 생성 한국에 갈 필요 없이 주소만으로 매각 제안서와 시세 분석을 받아 봅니다.	 03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멀리 있는 등기·건축물대장·실거래가 정보를 자동으로 끌어와 한눈에 정리합니다.	 04 현지 전문가 연결 세무·법무 전문가를 연결해 상속·매각 절차의 빈틈을 비대면으로 채웁니다.
---	--	--	---

자산 확인

현지 방문 → 원격

한국에 안 가도 가치 파악

자료 언어

한국어 → 모국어

익숙한 언어로 자산 이해

절차 진행

대면 → 비대면

어디서든 매각 검토 가능

“거리가 멀다고, 권리까지 멀어져선 안 됩니다.

ExitWise는 바다 건너의 자산을 당신의 언어로 가져옵니다.

— 어디에 살든,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것입니다